

마을산에 대해

일본 국토의 약 4분의 3을 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옛날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평지가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산악 지대에서 농업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발휘해 지역에 적응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토지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산의 들판에 인접한 토지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을 ‘산골 마을’이라고 불렀으며, 산골 마을을 둘러싸는 관리된 들판과 삼림을 ‘마을산’이라고 칭했습니다.

전통적인 마을산 관행의 한 예로 저목림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숲용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10~20년마다 줄참나무 등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베어 냈습니다. 베어 낸 나무는 오래된 그루터기에서 반복해 새로운 싹을 틔우고 되살아납니다. 싹은 뺏어난 나무뿌리에 비축된 에너지를 사용해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그 결과 베어 낸 나무는 종자나 묘목에서 옮겨 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채집할 수 있는 크기까지 성장합니다. 나무 밑 지면에는 잎과 부러진 가지가 쌓이므로, 매년 이를 모아서 연료나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마을산의 토지 관리 관행은 자연과 균형을 맞추면서 공존하는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 저수지, 관개 용수로는 텃새, 철새의 먹이터이자 번식지가 되는 동시에 개구리, 반딧불이, 잠자리와 같은 생물의 생애 주기에도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지붕을 이기 위해 길이가 긴 풀을 수확하기에, 햇빛을 받기 어려운 길이가 짧은 들풀의 재생이 촉진됩니다. 마을산에 사는 사람들은 재래종과 공존하고 도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발견해왔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청년들이 시골보다 도시에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기에 오늘날 마을산의 관행은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풍경이 지닌 한가로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마을산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산에 깃든 지혜를 살리려고 많은 조직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환경성과 국제 연합 대학 지속 가능성 고등 연구소의 합동 프로젝트 ‘SATOYAMA 이니셔티브’입니다.